



2023.05.15.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8호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 미래



차정미(국제전략연구센터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8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5월 15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 미래

차정미(국제전략연구센터장)



CONTENTS

| | |
|--|----|
| 1. 서론: 탈냉전 질서의 종언과 다가올 질서의 불확실성 | 06 |
| 2. 대전환의 시대: 세계질서 변화의 7가지 트렌드 | 08 |
| 3. 세계 학자들의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 Probable vs. Preferred | 17 |
| 4. 미래 국제질서에의 시사점과 제언 | 24 |
| 5. 결론: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 28 |

*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2-12 『The Future of the World Order in 2050: Probable vs. Preferred』를 토대로 작성함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질서의 변동과 지 정학적 불안정성이 급격히 제고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2022년 '2050년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글로벌 공동연구의 주제는 『The Future of World Order in 2050: Probable vs. Preferred』로 세계 주요국 학자들이 전망하는 '가능성 높은 미래(Probable future)'와 '선호하는 미래(Preferred future)'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공유하고 종합하여 이를 토대로 미래 국제질서의 전망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방향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데이터에 근거하여 미래 질서를 전망하는 보고서들은 많으나, 실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를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대전환'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모두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망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 질서를 원하는가"를 토론하지 않아 왔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열망에 귀기울이지 않아 왔다. 과학적 접근이 가끔은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행위자인 사람들을 배제해 왔고, 현상분석이 가끔은 우리의 선호와 의지를 묻는 데 무관심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50년 가능성 높은 미래를 전망하고, 선호하는 미래를 탐색하는 데 있어 단순히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닌 세계 주요국 학자들의 인식과 선호를 바탕으로 미래 국제질서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능 미래와 선호 미래 사이의 간극을 발견하고, 우리가 더 나은 그리고 더 선호하는 미래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단순히 미중 양대강국 중심의 담론이 아닌 나머지 국가(the rest of the world)들의 전망과 선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국제질서 변화를 전망하고, 선호하는 미래를 그려가는 데 있어 강대국만이 아닌, 모두가 구성원이고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나머지 국가들의 인식과 선호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강대국의 선호와 의지만이 주목받는 현실 속에서 다수의 나머지 국가들의 선호와 의지가 미래질서 형성의 주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전체 보고서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다양한 문헌과 논의들을 중심으로 국제질서 변화의 7가지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3장과 4장은 글로벌 공동연구진들이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에 대해 각자의 전망과 선호들을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분석한 것이다(다만,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진들의 의견은 소속 국가와 기관을 대표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개인의 견해를 밝힌다). 5장 결론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 국제질서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함을, 그리고 선호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력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Future of the World Order in 2050: Probable vs. Preferred 공동연구진>

- 차정미 (연구책임,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Ellen Laipson (미국, 조지메이슨대 안보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Kaisheng Li (중국, 상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 Kazuto Suzuki (일본, 도쿄대 교수)
- Jojin V. John (인도, 마하트마 간디대 교수)
- Markus Jaeger (독일, 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구위원)
- Andrew Wiguna Mantong (인도네시아, CSIS 연구위원)
- Uallace Moreira (브라질, Bahia연방대 교수, 개발상공부 산업개발무역혁신 차관)
- Shaimordanova Zara (카자흐스탄, Ablai Khan 대학 교수)
- Mustafa Kirisci (튀르키예, 미 DeSales 대학 교수)
- Ibrahim Kocaman (튀르키예, 미 Embry-Riddle 항공대 교수)
- Joseph A. Kéchichian (사우디아라비아, 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선임연구위원)
- Rahmane Idrissa (아프리카, 네덜란드 Leiden 대학 아프리카연구센터 교수)
- 전재성 (한국, 서울대 교수)

1. 서론: 탈냉전 질서의 종언과 다가올 질서의 불확실성

(탈냉전 시대의 종언). 2022년 10월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탈냉전 질서가 명백하게 끝났다(the post-Cold War era is definitively over)”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결코 세계를 경직된 진영으로 나누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충돌이나 신냉전으로 가는 경쟁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하고 있다.¹⁾ 최근 연설에서 열린 미 재무장관과 שלי벤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만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시장의 힘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세계화를 우선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중산층을 약화시키고, 화석연료로부터의 필요한 전환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 이 질적인 메시지들이 혼란스러우나, 명백한 점은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급속하게 그리고 제한없이 확대되었던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장주도 질서에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변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질서의 대전환). 탈냉전 이후 세계는 체제의 차이에 상관없이 자유무역과 지역경제 통합에 대한 열망이 확대되었고, 경제적 이익과 고려가 국가전략의 핵심이면서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확대로 인해, 전략적 고려와 국가안보적 고려가 경제적 교류는 물론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지배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메논(Menon)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국가들조차도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³⁾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는 과거 30년간 지속된 탈냉전 시대의 대전환을 말하고 있다. 중국은 ‘100년간 본 적 없는 대격변의 시대(百年未有之大變局)’라고 하고, 독일은 ‘시대전환(Zeitenwende)’을 이야기하고 있다.

1)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2022.10.12.

2) Stephen M. Walt, “U.S. Foreign Policy is about to Get Boring,” *Foreign Policy*, 2023.05.04.

3) Shivshankar Menon, “Nobody Wants the Current World Order,” *Foreign Affairs*, 2022.08.03

(불확실성의 시대). 그렇다면 탈냉전 시대의 종언, 대전환 이후 국제질서는 어떠한 모습일까? 현재가 과거와 다른 명확하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지 불확실하다. 2022년 9월 포린어페어즈지 100주년 기념호의 표제는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였다. 탈냉전 질서가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변화의 방향과 다가올 다음 질서의 모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 질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혼란과 변동의 질서를 경험하고 있다.

대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오늘날 변화의 흐름들이 미래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선호하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놓고 세계 학자들의 견해와 전망, 선호를 공유하고 종합한 것이다. 특히, 세계 담론을 지배하는 강대국들의 인식을 넘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나머지 국가들(the rest of the world)⁴⁾의 인식과 선호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최근 강대국 경쟁의 균열에 구속되지 않고 국익에 따라 균열을 넘나드는 나머지 국가들을 주목하는 시각들이 부상하는 이유도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가는데 강대국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의 인식과 의지 또한 주요한 영향요소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 본 연구는 최근 국제질서의 주요한 흐름들을 분석하고, 해외 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전망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 가장 선호하는 미래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4) 나머지 국가들(the rest of the world)의 개념은 비서구 국가, 개발도상국, 비동맹국들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Foreign Affairs, May/June 2023), 본 연구는 Hung Tran (2021), "How the Rest of the World Responds to the US-China Split" Atlantic Council Issue Brief 등의 연구들과 같이 패권경쟁의 주체인 미중 양대 강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을 지칭함

5)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 경쟁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비서구, 개발도상국들의 전략이 지속되면서 최근 포린어페어즈지는 "The Non-Aligned World: The West, The Rest, and the New Global Order" 표제 하에 중남미, 아프리카, 아세안 학자들의 칼럼을 연재한 바 있다. Foreign Affairs (May/June 2023)

2. 대전환의 시대: 세계질서 변화의 7가지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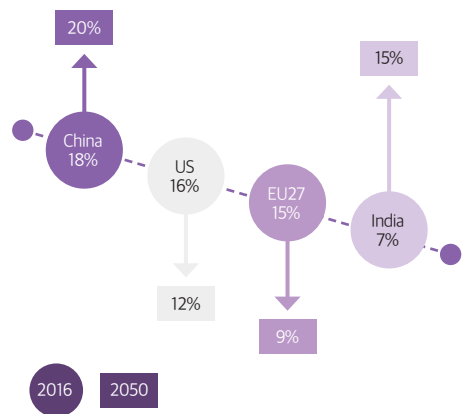
1. 글로벌 힘의 이동에 대한 충격, 미래질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극대화

국제질서의 변화를 촉진해온 첫 번째 트렌드는 글로벌 힘의 이동(power shift), 힘의 분산(power distribution)이다. 특히, 강대국 간 힘의 이동과 분산은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G7에서 E7⁶⁾으로, 서구에서 아시아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급격한 힘의 이동이 국제정치의 핵심 화두였다. 2017년에 발표된 PWC의 2050 미래전망 보고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각각 2, 4,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이 3위로 하락하면서 현재 G7 국가들은 모두 7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1> 글로벌 GDP 순위 변화 전망 *구매력평가(PPPs)기준 | 글로벌 경제점유율 변화 전망 (2016→2050)

| | 2016 | 2050 | |
|-----------|------|------|-----------|
| China | 1 | 1 | China |
| US | 2 | 2 | India |
| India | 3 | 3 | US |
| Japan | 4 | 4 | Indonesia |
| Germany | 5 | 5 | Brazil |
| Russia | 6 | 6 | Russia |
| Brazil | 7 | 7 | Mexico |
| Indonesia | 8 | 8 | Japan |
| UK | 9 | 9 | Germany |
| France | 10 | 10 | UK |

■ E7 economies ■ G7 econom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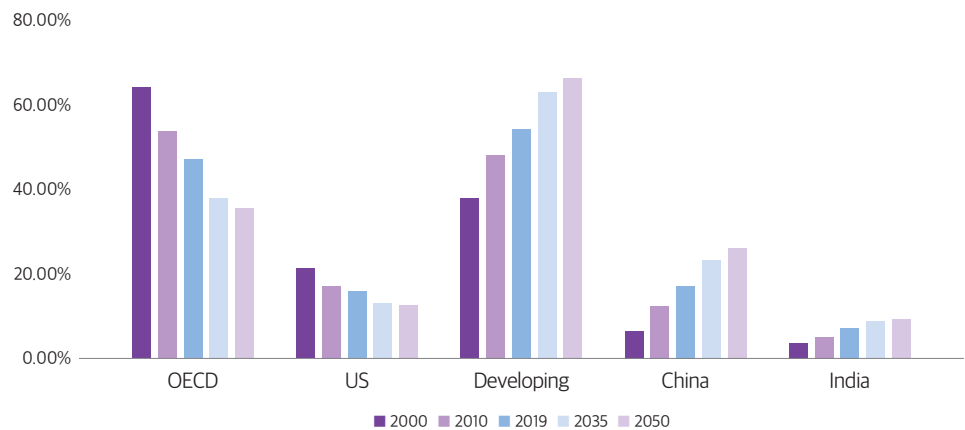


* PWC(2017), The Long View: How will the Global Economic Order Change by 2050. p.4.

6) E7(Emerging 7)은 신흥 경제성장국 7개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튀르키예-을 말함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후안강(胡鞍鋼) 또한 미국에서 중국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힘의 이동을 세계 질서 변화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2035년 개발도상국의 GDP가 선진국을 추월하여 글로벌 경제와 투자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⁷⁾

<그림 2> 글로벌 GDP 점유율 변화 전망(2000-2050)



* 胡鞍钢 (2021), 中国与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 基本走向与未来趋势, 『新疆师范大学学报』,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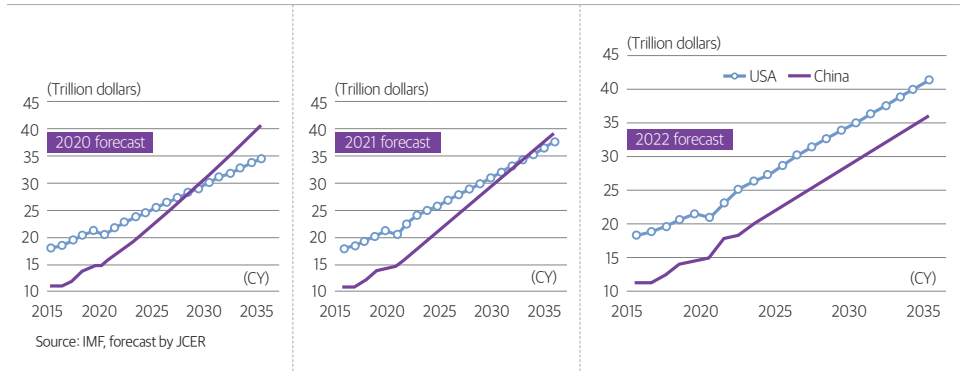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힘의 이동 전망은 강대국 경쟁의 부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Peak China’ 논쟁이 전개되면서, 중국은 미국보다 약한 상태로 유지되고, 미국의 리더십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⁸⁾ 2022년 일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 GDP가 2033년 혹은 2028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과거 전망과 달리 결국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⁹⁾

7) “国务院发展研究中心报告未来15年国际经济格局变化和中国战略选择,” 2019.01.02
https://www.sohu.com/a/286219328_825056

8) Michael Beckley (2020), “US-China relations: A Challenge to Conventional Wisdom,” in Donette Murray and David Brown ed. *Power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Mapping a Multipolar World?*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9)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sian Research Team, “Medium-Term Forecast of Asian Economies -Summary,” 2022.12.15.

<그림 3> 미중 양국의 GDP 변화 추세와 전망(2015-2035)



* JCER, "Medium-Term Forecast of Asian Economies-Summary," 2022.12.15.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구에서 아시아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힘의 이동, 힘의 역전에 대한 논의가 주류적 전망이었으나 최근의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힘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매우 혼란스러우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가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락과 진영화 질서의 부상. 경제와 기술에 대한 안보적 고려 확대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어샤이머(Mearsheimer)는 미중 양국이 경제, 군사 분야에서 경쟁하는 진영화된 질서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⁰⁾ 로드릭(Rodrik)과 월트(Walt)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정치 질서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수국가에서 국내정치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경쟁적인 지정학이 부상하면서, 경제통합이 중단되고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도 제한될 것으로 분석했다.¹¹⁾ 탈냉전 이후 진영과 이념을 떠나 자유롭게 교환되고 교류되었던 경제와 기술, 투자, 자원, 인재들이 이제는 전략경쟁과 안보적 고려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기업경영과 R&D협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제정치와 안보환경이 핵심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10) John J. Mearsheimer (Spring 2019), "Bounde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43 (4), p. 8.

11) Dani Rodrik and Stephen M. Walt, "How to Build a Better Order: Limiting Great Power Rivalry in an Anarchic World,"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2.

3. 다극질서의 부상과 미중 영향권 경쟁: 전략적 가치의 상승과 자율성 제약의 동시화

미국 일극질서 이후의 질서에 대해 양극과 다극, 무극(無極) 등 다양한 전망들이 전개되고 있다. 로드리크와 월트는 미국과 중국 중 미래에 누가 더 우위에 있을 지에 대한 합의는 없으나 이 두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강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며, 미래는 미중 양국이 주도하는 양극질서이거나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등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국가들이 함께 극을 형성하는 불균등한 다극질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¹²⁾ 아차리아(Acharya)는 다극, 무극, 일극 등의 유형화에 반대하면서 아이디어, 힘, 리더십 선택이 가능한 복합질서가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한다.¹³⁾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함께 미중 양국은 다른 극을 형성하는 국가들, 나머지 국가들을 유인하기 위한 경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나머지 국가들에게 전략적 가치의 상승과 전략적 자율성 제약이 동시에 부상하는 모순적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4. 민족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경제적 애국주의(economic patriotism)의 심화

오늘날 세계질서 변화의 핵심 트렌드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부상,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강대국 경쟁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¹⁴⁾ 강대국 경쟁의 부상과 함께 이러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개방을 축소시키는 트렌드를 강화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었다.¹⁵⁾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적 애국주의(economic patriotism) 또한 새롭게 강화되는 담론 중 하나이다. 경제적 애국주의는 국내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경제적 개입을 허용하는 틀을 제공한다.¹⁶⁾ 카나(Khanna)는 ‘새로운 경제적 애국주의(new economic patriotism)’는 과거 40년간 지속된 제한없는 세계화가 아닌 미국인의 이익에 토대한 세계화를 요구한다

12) Dani Rodrik and Stephen Walt (2021), “How to Construct a New Global Order,” Facult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of Harvard Kennedy School, May 2021. p.7.

13) Amitav Acharya (2014), *The End of American World Order* (Cambridge, UK: Polity Press).

14) Dani Rodrik and Stephen Walt (2022), “How to Build a Better Order: Limiting Great Power Rivalry in an Anarchic World,”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2.

15) Stephen M. Walt (2020), “Predictions For the Global Order After the Pandemic,” Association of Accredited Public Policy Advocates to the European Union, 2020.08.04.

16) Ben Clift (2022), “Economic patriotism: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governance in 21st century capitalism,” in Andreas Pickel, *Handbook of Economic Nationalism* (Edward Elgar Publishing).

고 강조한 바 있다.¹⁷⁾ 세계 주요국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 자국민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면서 첨단산업 제조시설과 기술생태계를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확대해 가고 있다.

5. 국제기구 역할에 대한 회의와 비판. 유사입장국 소다자주의(Like-Minded Minilateralism) 확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함께 UN, WTO, World Bank,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부상하고 있다. 다른 체제와 가치를 지닌 강대국 경쟁의 부상으로 점점 더 국제기구 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회의와 우려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22년 9월 유엔안보리에서 추진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규탄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 인도, 브라질, 가봉 등 4개국의 기권으로 부결되었고, 2022년 5월 대북 추가제재안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2023년 2월 유엔총회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193개국 중 39개국이 기권 혹은 반대한 바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기구의 정통성과 효율성의 약화는 그 역할과 리더십에 중대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2022년 4월 엘런 미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의 경로를 다시 그리고 있으며, 세계 2차대전 이후 형성된 글로벌 경제질서의 효과성과 신뢰가 심각히 후퇴하고 있고, 이는 분쟁을 중재하고 신(新)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발전시켜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⁸⁾ 파이낸셜타임즈도 새로운 브레튼우즈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브레튼우즈 2.0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¹⁹⁾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장인 리상양(李向阳)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UN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제약 등이 UN 개혁의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²⁰⁾

17) Ro Khanna, "The New Industrial Age," *Foreign Affairs*, 2023.01.05.

18) Thomas Duesterber, "The potential role of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in a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order," *ASPENIA*, 2022.06.16.

19) Bretton Woods Project, "A new Bretton Woods for whom? Civil society calls for democratisation of global governance," 2022.0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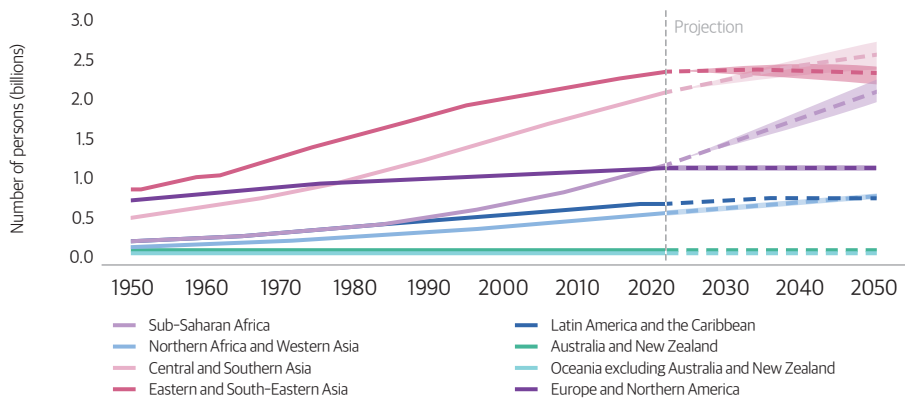
20)和讯网, "李向阳: 俄乌战争的前景与对中国的影响 | 中财龙马企投家课堂," 2022.04.28.

이렇듯 국제기구의 정책결정의 복잡성과 합의의 제약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소다자주의가 부상하고 있다.²¹⁾ 국제기구 내에서 가치균열과 진영화가 부상하면서 강대국은 물론 중견국들도 쿼드(QUAD), 오커스(AUKUS), I2U2(India, Israel, UAE, US), IFA(India-France-Australia) 등 작은 규모로 이익기반, 유사입장국간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6. 다수와 소수의 딜레마(Majority-Minority Dilemma). 비서구(Non-Western World)의 부상과 글로벌 민주주의

세계 인구변화도 미래 국제질서 변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IMF에 따르면 152개국의 개발도상국 인구가 66억 9천명으로 세계인구의 85.33%를 차지한다.²²⁾ 세계는 인구증가율에 큰 차이가 있으며, 결국 2050년 지역별 인구 규모는 더 새로운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가 2037년까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될 것이고, 유럽과 북미는 낮은 출산율로 2030년 후반 인구정점을 찍고 인구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²³⁾ 2050년대에는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 연령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가장 역동적인 소비자 시장이 될 것이다.²⁴⁾

<그림 4> 지역별 인구변화 추세(1950-2022)와 전망(2022-2050)



*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p. 4.

21) Husain Haqqani, Narayanappa Janardhan, "The Minilateral Era," *Foreign Affairs*, 2023.01.10.
 22) World Data. "Developing Countries"
 23)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pp. 4-5.
 24) Rahmane Idrissa, "The Future of the World Order in 2050: an African Perspective," in Jungmi Cha eds. *The Future of the World Order in 2050: Probable vs. Preferred*, p. 208.

이러한 인구변화를 반영한 다수화와 소수화의 추세는 중국 등 비서구 국가들이 글로벌 질서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데 자주 언급하는 논거이다. 중국은 서구국가들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항상 ‘소수의 서방국가들’이라고 비판한다. 2022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제51차 회의에서 파키스탄이 70개국을 대표하여 ‘신장, 홍콩, 티베트문제는 중국 내정이며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러한 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언급하며 ‘소수의 서방국가들’이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²⁵⁾ 강대국 경쟁과 진영화 속에서 소수와 다수의 딜레마는 미래 질서 변화 속에서 주요한 논쟁들을 제기할 수 있다. 브래드포드(Bradford)는 다원화된 세계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관리하는 방법은 복잡성, 대립, 모순을 현실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⁶⁾ 그만큼 다원화되고 변화하는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가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7. 가치규범 경쟁의 심화와 균열

강대국 경쟁과 진영화 질서의 부상, 다수와 소수의 딜레마 속에서 글로벌 보편가치와 규범에 대한 도전이 지속 확대되고, 가치이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발간된 미국 NIC의 2040 미래전망 보고서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또한 국제규범의 미래와 관련 미국 주도의 국제규범은 점점 더 많은 논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²⁷⁾ 중국은 21세기 중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말 ‘중국 민주주의 백서(中国的民主 白皮书)’를 통해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권백서를 통해 중국 특색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민주주의 백서 발간 이후 개발도상국과의 공동세미나 주최 등을 통해 중국 주도의 대안적 가치규범 논쟁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22년 TIU의 민주주의 인덱스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 4]에서 보듯 167개국 중 완전한 민주주의 24개국, 결합있는 민주주의 48개국, 혼

25) 华声在线, “外交部: 奉劝少数美西方国家不要再以人权教师爷自居,” 2022.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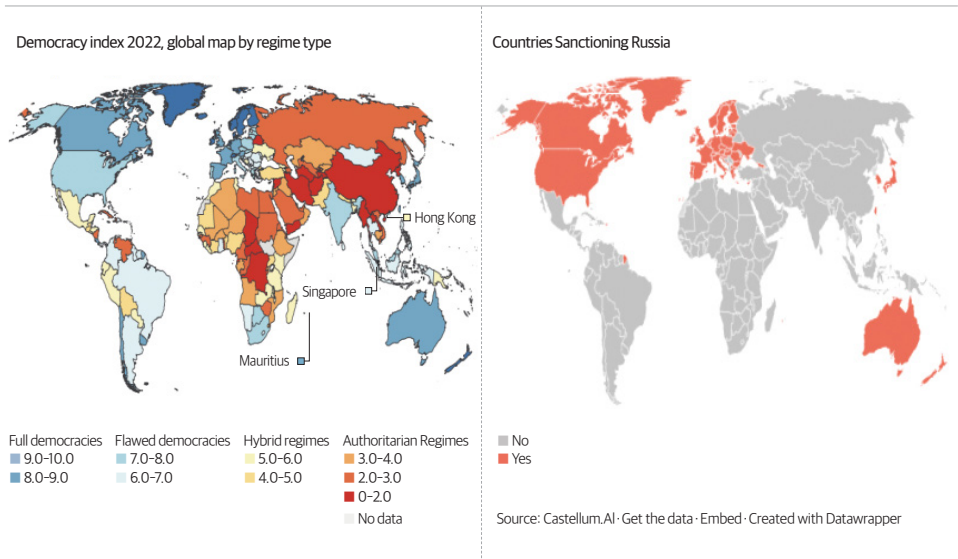
26) Colin I. Bradford,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the global order: Beyond singular visions to multivalent forcefields,” Brookings, May 4, 2022.

27)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1),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합체제 36개국, 권위주의 59개국으로, 취약한 민주주의 국가까지 포함해도 민주주의 국가는 43%에 불과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 또한 45개국에 불과하다.²⁸⁾ 결국,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경쟁 구도로 오늘날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치규범의 균열과 권위주의의 부상이라는 현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순히 유사 입장국 간의 결집과 연대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의 문제를 고민하고, 다수를 유인하고 다수와 연대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교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5> 세계 민주주의 인덱스 (2022, EIU)²⁹⁾

세계 러시아 제재 국가 (2023.4.5.일 현재)³⁰⁾



이러한 7가지 세계질서 변화의 트렌드는 강대국 경쟁, 팬데믹, 그리고 전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국제정치의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 불예측성이 존재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 국가들은 저마다의 인식과 선호를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대응해 가고 있다. 로드릭과 월트는

28) 제재 국가가 소수인 이유는 정치적 의지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적인 제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적 제재 프로그램이 없어도 미국, EU 등의 제재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인도, 이스라엘, 터키, 세르비아 등은 러시아에 대해 자율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다. Peter Piatetsky, "What Are Countries Doing to Counter Russia's War?," *Catellum.AI*, 2023.03.22. <https://www.castellum.ai/insights/which-countries-are-taking-action-on-ukraine>

29)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2: Frontline democracy and the battle for Ukraine. <https://pages.eiu.com/rs/753-RIQ-438/images/DI-final-version-report>

30) Catellum.AI, Russia Sanctions Dashboard. <https://www.castellum.ai/russia-sanctions-dashboard>

국제정치와 경제에 있어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는 미래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미래가 아닌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국가들의 열망과 의지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³¹⁾ 본 연구 또한 세계질서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국가들에 주목하고 있다. 모두가 대전환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고, 모두가 불확실성의 미래를 말하고 있을 때 과연 세계 주요국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무엇이며, 그들은 어떤 미래 국제질서를 열망하는지에 주목하면서 선호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31) Dani Rodrik and Stephen Walt, "How to Build a Better Order: Limiting Great Power Rivalry in an Anarchic World,"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2.

3. 세계 학자들의 2050 미래 국제질서 전망: Probable vs. Preferred

* 본 보고서 3장과 4장의 내용은 12개 국가 혹은 대륙(미국,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인도네시아, 브라질,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한국)³²⁾의 글로벌 공동 연구 참여학자들이 2050년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선호를 서술한 원고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한 내용이다. 저자들의 원고 내용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괄호() 안에 저자의 성(Last name)을 명기하였다.

12개국의 학자들이 전망하는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미래를 종합한 결과 미중 세력전이와 미중관계, 국제체제(다극화, 양극화), 국제기구 등의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전망과 선호에 있어서 공감과 합의가 존재는 부분들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제적 전략적 환경과 역량, 외교적 지향에 따라 각양각색의 분석과 선호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 2050년,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 국제질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질문에 학자들 대다수는 강대국 경쟁이 지속 심화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협력의 공간이 축소되면서 선택의 압박이 강화되는 미래 국제질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가능성 높은 미래 질서가 선호하는 미래 질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32) 연구대상에 포함된 12개 국가 및 대륙의 선정은 PWC 미래전망 보고서의 2050년 GDP 순위 11위 내에 들어가는 국가들(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일본, 독일, 영국, 터키 順) 다수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적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할 국가들을 포함한 것임.

1) 미중 경쟁의 미래: 경쟁과 갈등의 심화-경제적 상호의존이 이분법적 냉전구조 제약

첫째, 미중 양국 중 누가 2050년의 패권국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학자들간의 일치된 의견은 존재하지 않으나 미중 양국이 미래 질서에 있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대 강국일 것임에는 동의한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군사 정치외교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제1강국이 되는 권력분점을 전망하였다. 한편, 미국경제가 기술우위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했다. 중국이 기술분야의 우위를 가질 수는 있으나 광범위한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더 강한 위상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Laipson)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유지되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제패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Jaeger).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첨단기술과 교육 우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Li).

둘째, 2050년까지 미중 관계의 미래는 전략경쟁의 구도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중국은 부상할수록 점점 더 공세적이고 수정주의적 정책을 취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을 지속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Jaeger).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전략을 강화하면서 “메이드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확대하고 점점 더 세계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축소해갈 가능성이 높다(Suzuki). 이러한 미중 양국경쟁이 안보, 경제, 기술 등 전분야에 걸쳐 전개되면서 양국관계는 경쟁에서 갈등과 충돌로 점점 그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Jaeger).

셋째, 미중 군사충돌과 관련하여서는 직접 충돌의 가능성은 낮으나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2050년까지 미중이 전쟁을 치를 가능성은 낮으나 군사력 경쟁과 긴장은 지속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Laipson; Suzuki; Chun). 중국은 체제안정에 주력할 것이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사용을 억지하기 위해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학자들은 2050년까지 전반적으로 미중 양국관계는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미소 냉전 시기와는 다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John; Moreira; Kirisci&Kocaman; Zara). 미중 갈등은 경제적 상호의존, 중견국들의 관여, 지역 강대국 경쟁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경제적 상호의존 등으로 통제되거나 관리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존재했다. 리(Li)는 일부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미중 경쟁의 양상은 생사를 건 싸움이 아니라 공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라만(Rahmane)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대국 충돌을 제약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하고, 미중 경쟁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미중 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2) 미중 경쟁의 영향: 무질서한 세계와 진영화 질서의 부상.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도전

미중 경쟁 심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에 중대한 도전을 초래하게 되고, 나머지 국가들에 선택 압박과 경제안보적 위기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고, 기후재앙이 도래하는 등 2050년까지 향후 30년은 글로벌 무질서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Jaeger). 이러한 미중경쟁의 심화는 나머지 국가들에게 무역과 투자의 위축은 물론 식량과 에너지 안보 등 경제문제에 가장 주요한 도전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Mantong).

지정학 경쟁이 경제분야로 확대되면서 상호의존의 무기화, 선택적 경제 디커플링, 국제 경제 질서의 부분적 균열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Jaeger). 결국 2050년 세계질서는 미국 주도의 서구질서가 도전에 직면하고(Kéchichian), 세계는 두 개의 적대적인 경제블록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다(Zara). 세계가 이념적 균열에 토대한 적대적 양극체제인 미소 냉전시대를 반복할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협력은 점점 축소되고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ahmane).

미중 경쟁의 장기화와 심화는 나머지 국가들의 선택 압박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국 경쟁의 심화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중견국들에게 외교적 도전을 초래할 수 있다. 미중 경쟁 심화와 디커플링 전략 하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선택의 압박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Chun; Jaeger).

3) 미래 국제체제: 준(準)양극체제(quasi-bipolar) 혹은 불안정한 다극체제

지속되는 힘의 이동은 국제구조, 국제질서 전반의 변화와 연결된다. 미국 일극질서의 쇠퇴 이후 다가올 질서에 대해 학자들은 양극질서, 다극질서, 무극질서 등 다양한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다극질서보다는 미중 양극질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중 어느 한 쪽이 전통적 개념의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세계 공공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증대하는 상황에서 미래 어느 한 강대국이 이러한 패권의 부담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Chun). 결국 미래는 미중 양국이 패권경쟁을 지속하는 양극체제 가능성이 높으나, 미소 양극체제와는 달리 중견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한 양극체제(weak-bipolar)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학자들은 다극질서가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라고 전망한다(John, Moreira, Suzuki). 인도,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대국들과 EU, AU(아프리카연합) 같은 지역블록이 미래에 하나의 극을 형성하면서 다극질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존(John)은 인도가 중국의 경쟁자가 되고 미국-중국-인도의 삼각관계가 강대국 정치의 핵심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스즈키(Suzuki)는 패권국이 국제질서를 유지할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다극질서가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4) 국제기구와 보편규범의 약화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공감대가 존재했다. 미국이 다자적 규칙 기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낮아지고 중국이 특정 지역에서 대안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Jaeger). UN 등 현재의 국제제도는 글로벌 힘의 분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적합하지 않거나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John). IMF와 WTO 하의 다자적 협력 또한 약화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지역기구들이 UN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할 수 있으나 전지구적 역할이 아닌 지역차원에서의 역할에 머무를 것이다(Laipson). 달러의 약화와 함께 중국-유라시아 경제연합(China and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이 독자적인 국제금융재정체계를 모색하고 있다(Zara). 브라질도 브릭스 메커니즘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Moreira). 이렇듯 미래 국제질서는 국제기구의 한계가 부상하면서 대안적 제도들이 경쟁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가치 등 보편규범도 더 강한 국가통제의 부상으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여전히 많긴 하나 일부 국가들은 더 이상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되기 어려울 것이다(Laipson). 아프리카도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제도로 채택하긴 하였으나, 최근의 트렌드를 고려할 때 2050년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이름뿐인 민주주의 국가일 수 있다(Rahmane).

이렇듯 강대국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국제기구의 역할 후퇴 등을 고려할 때 2050년까지 향후 30년은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도전과 위기에 대응해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도전을 해결해 갈 리더십이 약화되는 현실은 미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2. 2050년, 가장 선호하는 미래 국제질서는?

선호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미중 양국관계가 협력적이고 건설적이며, 국제질서가 좀 더 다원화되고 민주화되면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없는 질서라고 답했다.

1) 선호하는 미중관계의 미래: 미중 협력 > 관리가능한 건설적 경쟁 > 군사충돌.전쟁

가장 선호하는 미래는 강대국 경쟁의 부재와 세계 경제의 균열과 불안의 위험이 없어지고, 국가들이 다시 경제협력 추구하고 기술확산에 중점을 두는 질서이다. 미중간 협력 없이는 어떠한 미래의 화해와 협력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Li).

차선의 미래 시나리오는 관리가능한 경쟁 질서이다(Jaeger). “관리 가능한 전략경쟁(managed strategic competition)” “규범기반의 경쟁(rules-based competition)”으로 건설적 경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Jaeger; Chun). 미중 양국이 경쟁과 선택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고, 극한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는 것이다(Laipson).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지양하고, 자유무역 원칙에 기반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안정화 시키면서 국제질서를 안정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지양하고, 강압외교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를 거둬들이는 것이다(Suzuki).

2050년까지 가장 최악의 미래는 미중 양국간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데에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강대국 경쟁이 군사충돌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경쟁이 항상 파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람직한 강대국 경쟁의 미래는 글로벌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국제질서 구축 경쟁, 평화 기여경쟁을 하는 것이다(Chun). “경제경쟁이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긴 하지만, 군사 충돌보다는 훨씬 낫다”는 월츠(Waltz 1993)의 언급은 미중경쟁 시대 주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³³⁾

33) Kenneth N. Waltz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2, 74.

2) 다극화된 미래 질서와 나머지 국가들의 역할 부상

대다수 국가들은 규범에 기반한 다극화된 미래를 선호했다. 다만, 강대국과 나머지 국가가 선호하는 다극 질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했다. 미중 양국은 다극 질서 하에서도 강대국 리더십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는 다극 질서가 규범에 기반한 경제적 다자주의와 평화적 안보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완화된 미국 일극체제가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Suzuki; Jaeger).

다수의 중견국들은 각자가 하나의 극을 형성하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극 질서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Kirisci and Kocaman).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강화하면서 서구주도 질서와 경쟁하고 다극화를 추구한다(Moreira). 인도 또한 다극질서의 미래를 선호한다. 인도는 단순히 글로벌 차원의 다극질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이 독점하지 않는 다극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중요한 선호미래의 요소로 강조한다(John).

다수의 중견국, 지역 강대국들은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보다는 개선되는 것을 선호했다. 전략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인간안보와 기후변화 등 초국적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기반의 협력적 다극 질서를 선호했다.

3)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민주적 다원적 국제질서

국제기구 개혁 문제에 대해선 강대국과 나머지국가들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현재의 국제질서가 민주적이지 않은 만큼 더 민주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선호미래의 주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제질서가 민주성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John; Moreira; Li; Kirisci and Kocaman),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더 나아가 '자유민주적 질서(liberal democratic order)', 즉 국력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평등에 기반한 국제질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Chun).

개발도상국들은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이 바람직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도 UN, World Bank, WTO 등 국제기구가 서구주도라는 점에서 미래에는 개발도상국들과 신흥경제국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균형된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Li). 인도와 터키 등 중견국들도 자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 등 국제기구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불공평 등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John; Kirisci and Kocaman). 아프리

카와 같은 약소국들은 탈냉전기 미국주도 질서가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인식하며,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수정주의자라고 강조한다(Rahmane). 다수의 비서구 국가들에게 선호미래를 위한 주요한 요소는 서구중심 규범과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를 조금 더 균형잡힌 구조로, 다양한 국가들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 주요한 요소이다(Li; John).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필요성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반면, 그 방향과 구체적인 개혁어젠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치된 합의가 취약한 것이 선호질서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위의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를 비교할 때, 학자들은 불행하게도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 미래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선호하는 미래는 상당 부분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미중 전략 경쟁과 상호불신이 점점 더 심화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선호 미래는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각국 학자들의 글을 통해 더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미래 국제질서를 향한 강한 기대와 의지가 존재함을 또한 알 수 있었다.

4. 미래 국제질서에서의 시사점과 제언

연구 결과를 통해 국제질서의 합의와 제언을 종합하면 미중 양국 모두에게 협력을 위한 정책적 변화와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위협 등 글로벌 공동협력의 공간들을 확대해 가자는 것이다. 아래는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시사점과 제언이다.

1. 강대국 경쟁에 대한 양면 인식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미중 경쟁이 자국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나,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지리적 위치,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강대국 경쟁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세계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오는 이익을 누리왔던 다수의 선진국, 중견국들은 글로벌 경제의 양극화가 초래할 중대한 경제적 도전들을 우려한다(Jaeger). 또한 군사충돌로 인한 연루의 위협을 우려한다.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분쟁 시 자국영토가 전장, 혹은 접근로가 될 것을 우려한다(Mantong). 또한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진영화 질서의 부상이 지역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는 미중 경쟁의 심화가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Zara).

한편, 아프리카는 탈냉전 시대 국제질서가 아프리카 통합과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미중 경쟁이 오히려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협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인식한다(Rahmane). 브라질 또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양국 모두로부터 경제적 기술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Moreira). 미중 경쟁이 단순히 도전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도 인식되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전략적 자율성과 지역통합적 대응 추구

많은 국가들이 강대국 경쟁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술적 우위와 군사적 역량 강화, 다양한 외교 이니셔티브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Jaeger; Suzuki; Moreira; Zara). 또한 외부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힘과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통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2050년 선호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어젠다가 되고 있다. EU는 잠재된 경제력을 적극 동원하여 미중의 지정학적 압박에 맞서고자 하고 있으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 취약성을 제한하고 미중 양국의 규칙 기반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통합된 유럽을 추구하고 있다(Jaeger). 인도네시아의 ‘비전 2045’도 아세안의 중심성을 지켜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중 어느 한 국가가 아세안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식한다(Mantong). 중앙아시아 역시 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지역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Zara). 아랍국가들은 이념을 초월한 아랍주의(또는 코스모-아라비즘)를 강조하는 통합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Kéchichian). 아프리카 연합 또한 선호미래를 위해 아프리카 통합과 “아프리카 르네상스” 구상을 적극 구체화하고 있다(Rahmane).

3. 다중, 복합 연대 전략 (Multi-alignment approach) 추구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 쪽에 편중되기 보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다중 연결 전략이 나머지 국가들에게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한 국가와 배타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보다 다중연대(multi-aligned), 다원연결(multi-networked)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미중 양국 모두와 상업, 기술, 금융협력을 통해 실용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브릭스를 통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반민주주의 운동에 적극 대항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Moreira). 이슈별로 국익에 기반하여 강대국과의 선택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다.

다중연대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강대국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과의 제3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중 연대 전략 기조는 미래 국제질서가 다극화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John). 튀르키예는 외교정책 협상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동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Kirisci and Kocaman). 미중 양대 강국에 모두 연대하면서 한편으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선호미래 구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4. Like Minded(유사입장국)의 부상과 논쟁적 질서의 부상, 소다자체제의 확대

미국 NIC의 미래전망 2040보고서는 세계 각국들이 기존의 정체성 혹은 새롭게 부상하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유사입장국 그룹들과 안보를 추구하면서 미래 질서는 균열되고 논쟁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강대국들은 유사입장국가들과 공식 비공식의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질서의 균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유사입장국가들과 양자, 소다자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인도의 아시아 전략은 아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RIC, SCO, 쿼드 등 양자 다자 체제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다(John). 브라질의 전략적 중점 또한 브릭스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고(Moreira), 아프리카도 자유무역지대(AfCFTA,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를 구축하는(Rahmane) 등 다양한 다자체제의 부상은 미중 강대국 경쟁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외교전략이 되고 있다.

5. 경제우선, 혁신우선주의 (Economy and Innovation First)

강대국과 나머지국가들 모두 경제와 기술혁신을 2050 선호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산업정책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발전의 틀로 전략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으며(Mantong), 브라질의 2050 사명 또한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혁신잠재력으로 국가산업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Moreira). “뉴 카자흐스탄”비전과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목표도 지속발전과 지식 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달성하는 데 있다(Zara). 일본 또한 기술우위와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Suzuki). 보호주의의 부상 속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규제와 개입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AI와 같은 신기술에 보호주의와 국가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외교정책이 디지털전환과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정책에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

6. 선호미래를 위한 중견국 역할의 중요성 증대

미중 전략경쟁은 양자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동맹경쟁과 영향력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지지, 우호적 자기진영의 확대, 소위 유사입장국을 확대하는 노력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중견국은 미중 양대 강국간의 긴장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유럽국가, 일본과 호주 등은 미중 양국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건설적 매개자,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050 다극질서의 미래는 중견국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한다. 미래의 리더국가는 전통적 패권국과 달리 중견국 등 다수의 지지를 통해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Chun). 인도는 미래질서에서 '선도국가(leading power)'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으며(John), 튀르키예 또한 자국이 중재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미래를 선호한다(Kirisci and Kocaman). 유사 입장의 중견국들은 다가올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중재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평화로운 지속 발전의 미래를 위해 유사입장의 중견국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7. 기후변화, 팬데믹 등 초국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재강화

다수의 학자들은 기후변화는 글로벌 협력이 가장 긴급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Laipson; Zara).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은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지역 강대국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Kirisci and Kocaman).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저탄소 정책으로 가장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Rahmane). 많은 학자들은 강대국 경쟁의 부상이 다가오는 기후 재앙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한다. 강대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팬데믹, 사이버 안보위협 등 다양한 초국적 도전들이 부상하는 미래 질서 속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 결론: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우리는 다자간 협력과 집단적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강대국 경쟁,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주의와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 글로벌 거버넌스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대중국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 블록을 강화해 가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the rest)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교적 비용을 피하면서 이 거대한 힘의 경쟁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많은 중견국과 개발도상대국들은 미래의 다극화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극으로 부상하기 위한 저마다의 전략을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서구 주도의 국제 질서가 쇠퇴하고 강대국 경쟁이 부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30년 이후 미래 질서는 아직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며, 세계는 혼돈스러운 불명확한 전환의 질서에서 있다.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2050년 세계질서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인식과 선호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많은 학자들은 가장 선호하는 미래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대국 경쟁, 지정학적 긴장과 적대적 민족주의가 고조되면서 바람직한 세계 미래가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학자들이 참여한 본 연구가 우리는 어떠한 미래질서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미래 질서를 구축해 갈 수 있을지, 가능성 높은 미래와 바람직한 미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지에 대한 토론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월츠(Waltz, 1993)는 국가는 국제체제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강대국은 쇠퇴를 막거나 되돌리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한다.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많은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미중 경쟁과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 세계에서 자국의 국익과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월츠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구조적 변화와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

다. 우리는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 여전히 공통된 인식과 선호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유사입장국들 사이에서도 특정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과 전략을 가질 수 있고, 유사입장그룹 밖의 국가들과도 여전히 공통된 이익과 전략적 접점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세계 국가들의 선호와 전략을 파악하고, 이러한 세계의 전략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협력의 접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슨(Laipson)은 예측과 전망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래 연구의 판단을 일종의 과학적 진리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의 목적도 미래에 대한 완전한 정확한 예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견해와 전략을 이해하고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공간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피터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질서의 전환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를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향과 과제들을 토론해야 한다. 세계 학자들의 미래 전망과 선호를 담아낸 본 연구가 다양한 국가들과 더 나은 미래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질문과 토론을 시작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

...Peter Drucker

참고문헌

- Acharya, Amitav. 2014. *The End of American World Order*. Cambridge, UK: Polity Press.
- Beckley, Michael. 2020. "US-China relations: A Challenge to Conventional Wisdom." in Donette Murray and David Brown ed. *Power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Mapping a Multipolar Worl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radford, Colin I.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the global order: Beyond singular visions to multivalent forcefields." Brookings. 2022.05.04.
- Clift, Ben. 2022. "Economic patriotism: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governance in 21st century capitalism." in Andreas Pickel, *Handbook of Economic Nationalism*. Edward Elgar Publishing.
- Duesterber, Thomas. "The potential role of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in a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ic order." ASPENIA. 2022.06.16.
- Haqqani, Husain and Narayanappa Janardhan, "The Minilateral Era," *Foreign Affairs*. January 10, 2023.
- Khanna, Ro. "The New Industrial Age." *Foreign Affairs*. 2023.1.5.
- Mearsheimer, John J. 2019. "Bounde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43 (4).
- Menon, Shivshankar. "Nobody Wants the Current World Order." *Foreign Affairs*. 2022.08.03
- Piatetsky, Peter. "What Are Countries Doing to Counter Russia's War?" *Catellum.AI*, 2023.03.22.
- <https://www.castellum.ai/insights/which-countries-are-taking-action-on-ukraine>
- Rodrik, Dani and Stephen M. Walt. "How to Build a Better Order: Limiting Great Power Rivalry in an Anarchic World."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22.
- Tran, Hung. 2021. "How the Rest of the World Responds to the US-China Split." Atlantic Council Issue Brief.
- https://www.atlanticcouncil.org/wp-content/uploads/2021/01/US_China_split_final.pdf

- Walt, Stephen M. 2020. "Predictions For the Global Order After the Pandemic." Association of Accredited Public Policy Advocates to the European Union. 2020.04.08.
- Walt, Stephen M. "U.S. Foreign Policy is about to Get Boring." *Foreign Policy*, 2023.05.04.
- Waltz, Kenneth N. 1993.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18:2.
- Bretton Woods Project. "A new Bretton Woods for whom? Civil society calls for democratisation of global governance." 2022.07.21.
<https://www.brettonwoodsproject.org/2022/07/a-new-bretton-woods-for-whom-civil-society-calls-for-democratisation-of-global-governance/>
- Catellum.AI, Russia Sanctions Dashboard.
<https://www.castellum.ai/russia-sanctions-dashboard>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2: Frontline democracy and the battle for Ukraine.
<https://pages.eiu.com/rs/753-RIQ-438/images/DI-final-version-report>
-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Asian Research Team. "Medium-Term Forecast of Asian Economies-Summary." 2022.12.15.
- The White House Press Briefing. 2022.10.12.
-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21. *Global Trends 2040: A More Contested World*.
- World Data. "Developing Countries."
- 和讯网. "李向阳: 俄乌战争的前景与对中国的影响 | 中财龙马企投家课堂." 2022.04.28.
- "国务院发展研究中心报告未来15年国际经济格局变化和中国战略选择," 2019.01.02
https://www.sohu.com/a/286219328_825056
- 华声在线. "外交部:奉劝少数美西方国家不要再以人权教师爷自居." 2022.09.27.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 발행일 | 제목 | 작성자 | vol |
|-------------|--|-------------|-----|
| 2023.05.15. |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 차정미 | 68 |
| 2023.05.01. |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 박상훈·정순영·김승미 | 67 |
| 2023.04.17.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 이선화 | 66 |
| 2023.04.10. |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 김은아 | 65 |
| 2023.03.20. |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 이상직 | 64 |
| 2023.03.06. |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 여영준 | 63 |
| 2023.02.27. |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 박상훈 | 62 |
| 2023.01.09. |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미래연구원 | 61 |
| 2023.01.02. |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 박현석 | 60 |
| 2022.12.12. |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 성문주 | 59 |
| 2022.11.28. |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 민보경 | 58 |
| 2022.11.14. |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 정 훈 | 57 |
| 2022.10.3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 여영준 | 56 |
| 2022.10.24. | 일본의 청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 정혜윤 | 55 |
| 2022.10.17. |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박상훈 | 54 |
| 2022.09.19. |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 김유빈 | 53 |
| 2022.09.05. |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 유희수·우해봉 | 52 |
| 2022.08.22. |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 정 훈 | 51 |
| 2022.08.08. |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 이상직 | 50 |
| 2022.07.25. |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 이선화 | 49 |
| 2022.07.11. |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 민보경 | 48 |
| 2022.06.13.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이채정 | 47 |
| 2022.05.30. |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 성문주 | 46 |
| 2022.05.16. |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 박성원 | 45 |
| 2022.05.02. |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 박상훈·문지혜·황희정 | 44 |
| 2022.04.18. |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 김은아 | 43 |

| 발행일 | 제목 | 작성자 | vol |
|-------------|---|-------------|-----|
| 2022.04.04. |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 여영준 | 42 |
| 2022.03.21. |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 이선화 | 41 |
| 2022.03.07. |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 박현석 | 40 |
| 2022.02.21. |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 김현곤 | 39 |
| 2022.02.07. |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 허종호 | 38 |
| 2022.01.24. |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 이상직 | 37 |
| 2022.01.10. |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 김유빈 | 36 |
| 2021.12.30.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 정 훈·여영준 | 35 |
| 2021.12.23. |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 민보경 | 34 |
| 2021.12.16. |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 이채정 | 33 |
| 2021.12.09. |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 성문주 | 32 |
| 2021.11.18. |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 이선화 | 31 |
| 2021.11.04. |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 조해인 | 30 |
| 2021.10.21. |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 박성준 | 29 |
| 2021.10.07. |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 박현석 | 28 |
| 2021.09.16.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 여영준·조해인·정 훈 | 27 |
| 2021.09.03.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 성문주 | 26 |
| 2021.08.19. |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 민보경 | 25 |
| 2021.08.05. |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 전 준 | 24 |
| 2021.07.22. |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 김유빈 | 23 |
| 2021.07.08. |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 박상훈 | 22 |
| 2021.06.24. |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 박성원 | 21 |
| 2021.06.10. |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 김현곤 | 20 |
| 2021.05.27. |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 이채정 | 19 |
| 2021.05.13. |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 조인영 | 18 |
| 2021.04.29. |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 허종호 | 17 |

| 발행일 | 제목 | 작성자 | vol |
|-------------|---|---------|-----|
| 2021.04.15. |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 이선화 | 16 |
| 2021.04.01. |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 여영준 | 15 |
| 2021.03.18. |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정 훈 | 14 |
| 2021.03.04. |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 박성준 | 13 |
| 2021.02.18. |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 허종호 | 12 |
| 2021.01.21. |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 성문주 | 11 |
| 2021.01.07. |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 민보경 | 10 |
| 2020.12.24. |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 박성원·김유빈 | 9 |
| 2020.12.10. |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여영준 | 8 |
| 2020.11.26. |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아 | 7 |
| 2020.11.19. |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 박성원·정영훈 | 6 |
| 2020.11.12. |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 김현근 | 5 |
| 2020.10.15. |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 박상훈 | 4 |
| 2020.09.17. |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 김홍범 | 3 |
| 2020.09.03. |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 박성원 | 2 |
| 2020.08.20. |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 김유빈 | 1 |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